‘진도 제1대교’ 또 바지선 충돌

조류발전소 건설용 대형 ‘재킷’ 침몰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工期 차질
안전관리 허점…교량 정밀진단 돌입

오는 10월 완공예정인 진도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바지선(barge船)이 ‘진도 제1대교’ 상판에 부딪혔다. 이번 사고로 조력(潮力)을 생산하는 터빈을 거치하는 대형 ‘재킷’(jacket)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상당기간 공기 차질이 우려된다.

■바지선 충돌 사고현장

특히 조류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바지선의 교각 충돌 사고는 지난해 8월에 이어 두번 째로,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공사 현장 및 교량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고 및 피해상황=지난 22일 밤 11시20분께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울돌목에서 부산선적 2천667t급 ‘현대로얄 만일호’가 빠른 물살에 밀려 진도에서 해남 쪽 322m 지점 상판에 충돌, 좌초됐다. 이 사고로 대교(길이 484m·너비 11.7m 높이 30m) 난간 세 군데가 ▲깊이 50㎝ ▲길이 1~2m 파손됐다. 교량은 보수 중으로 차량통행은 중지된 상태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바지선에 실려있던 높이 40m· 길이 30m·너비 70m·무게 690t짜리 철 구조물 ‘재킷’(시가 38억원 상당)은 23일 새벽 0시5분께 충돌지점에서 70m 떨어진 수심 14.5~24.5m 아래 바다로 침몰했다. 이 ‘재킷’은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2005년 11월~2006년 10월까지 제작한 것이다. 이후 진도 벽파항에서 수차(프로펠러) 설치작업 후 22일 밤 10시 공사현장으로 옮기던 중이었다.

◇사고 원인=사고는 3천200마력·2천800마력 예인선 2대가 바지선을 끌고 가던 중에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할 무렵 3천200마력 예인선 1대가 기관고장으로 멈춰섰다. 교량 앞에서 130m 떨어진 곳이다. 사고 당시 유속은 5.8노트(시속 10.74㎞, 1 knot=1.852km/h). 하지만 2천800마력 예인선 1대로 바지선 등을 이끌고 거슬러 올라가기란 역부족이었다.

울돌목의 조류가 빠른 것은 수위(水位)차와 좁은 폭 때문이다. 해협 폭은 294m에 불과하며, 만조와 간조사이에 2m의 수위 차가 생긴다. 조류 속력은 최대 11노트(시속 20㎞)가 넘는다.

◇교량 안전=해경은 일단 교량 관리업체인 현대건설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로 파손된 부분은 크지 않지만, ‘재킷’의 무게가 690t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진도 제1대교’는 지난해 8월27일에도 부산선적 3천t급 바지선 ‘JB1호’에 실려있던 해저굴착기(높이 36m)가 충돌, 금속 바람막이 판 50여m와 가드레일 5m가 부서졌었다.

◇현장 수습=목포해경과 시공사 측은 1시간40여 분 만에 좌초된 바지선을 예인했다. 하지만 사고당시 바다에 빠진 ‘재킷’은 교각 등에 재충돌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경은 경비정을 동원, 인근 해역의 선박 운항을 통제하고, 빠른 시일내에 ‘재킷’을 인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은 23일 교량의 상판·케이블·교각에 대한 육안 점검을 실시했으며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경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보지질, 예인선 선장 등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목포=이상휴기자 lsh@

지난 22일 밤 시험조류발전소 대형 철 구조물을 싣고가던 바지선과 충돌, 부서진 ‘진도 제1대교’. 수심 14.5~24.5m 깊이의 울돌목(鳴梁海峽)은 해협 폭이 294m로 좁은데다, 유속이 최고 11노트(시속 20㎞)를 넘어 잦은 해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진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는

1천kW급 세계 최대 규모로 10월 완공 예정

울돌목에 건설 중인 1천kW급 시험조류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다. 육지에서 발전구조물(재킷)을 제작한 후 미리 조성한 암반 위에 설치하는 방식(선 거치 후 굴착)으로 건설된다. 또 육지에서부터 발전 구조물까지 90m의 연결잔교를 설치한다. 터빈은 조류의 왕복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직축 터빈을 사용한다. 풍력발전이 선풍기 형태의 수평축 터빈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발전 구조물과 상부 하우스를 포함하는 시험조류발전소의 크기는 ▲가로 16m ▲세로 36m ▲높이 31.6m이고 총중량은 690t이다. 예산은 76억원이 투입되며, 발주처는 한국해양연구원이다. 공사기간은 2005년 4월21일~2007년 10월21일까지다.

현재 공정률은 당초보다 9개월 지연된 64%. 이번 ‘재킷’ 설치가 성공했을 경우 공정률은 70%에 달할 예정이었다.

시험조류발전소에는 다양한 형태의 수차(水車)·발전기 및 전력변환장치 등이 설치돼 실증실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연구원 측은 발전효율이 가장 높은 모델을 만든 후 2천억원을 투자해 9만kW급 상용 조류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상용 조류발전소 건설은 세계 최초로, 3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또 연간 290억원의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를 갖는다. 원유로는 86만 배럴에 달하는 양이다. 해양연구원은 울돌목에 최대 66만kW의 조류 에너지가 부존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음대 교수 채용 금품수수”

광주지검, 압수수색 등 수사 착수

검찰이 광주 모 대학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을 포착, 교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에 따르면 광주 모 대학 음대 교수 채용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제공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학과 교수 2명을 상대로 사실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학과 정교수인 A교수와 전임강사 B씨 등의 교수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임강사 B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교수 채용 심사과정에서 “교수로 채용되도록 해달라”라며 금품을 A교수에게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B씨가 ▲신규 임용과정에서 제출한 박사 학위가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된 것인지 여부 ▲이 학위가 국내법상 박사학위에 해당하는지 ▲학위 입증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을 먼저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B교수가 채용 과정에서 A교수 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으며, 이들의 혐의점이 입증될 경우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상시위 주도 어민회장 ‘위장 어민’

광양 어민회 간부 넷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광양항에 입항하는 화물선의 항로를 막고 예인선에 불을 지르려 한 광양시 어민회장 김모(36)씨 등 어민회 전·현직 간부 4명을 선박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광양항 낙포부두 앞 해상에서 어선 6척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던 중 케미컬 운반선을 예인 중이던 예인선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고, 입항 중이던 화물선 2척의 항로를 막은 혐의다.

이들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6월 포스코가 진행한 LNG터미널 신축공사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시위를 벌였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 피해 보상 금액을 수령하면 총액의 10%를 위원장이, 총액의 5%를 집행위원들이 나눠 갖고 나머지를 회원들에게 나눠 준다는 내용의 회칙을 제정한 뒤 이를 악용해 집회 및 시위를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위를 주도한 어민회장은 자신 소유의 어선이 없고, 개인사업을 하다 광양에 돌아와 어민회 활동에 참여한 위장 어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훔친 소방호스 관창 구입
고물상 구속

광주 남부경찰은 23일 전문 절도단이 훔친 소방호스 구리 관창(管槍·nozzle)을 구입한 고물상 김모(38·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김모(32·인천시 중구 도원동) 등 3명이 훔친 소방호스 구리 관창 400㎏을 170만원에 매입하는 등 29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장물을 취득한 혐의다.

고물상 김씨는 4천200원에 매입한 관창을 인천의 K주물 공장에 200원의 웃돈을 붙여 넘기는 등 지금껏 전국에서 훔친 관창 1만753개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여울기자 wool@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636 최대단지!
| 풍영정천 · 호수공원 조망의 최고 입지 |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나원참 〈7111〉 김종두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병원 직원이 입원 여고생 성추행

쌍나팔

○…진도경찰은 23일 병원에 입원 중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도 J병원 직원 A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께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증세로 입원 중인 여고생 B양에게 접근, “몸은 괜찮으냐?”며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

○…B양은 식중독 증상을 보인 남녀 고교생 11명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병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함께 있었으나 모두 잠들고 B양 혼자 깨어있었다고

○…A씨는 “환자를 돌보러 갔지 성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병실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일축.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신입/경력 사원모집

당사는 주택건설사업 및 일반건설공사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회사로서 사세확장과 더불어 당사와 함께 할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신입/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구 분	모 집 부 문	직 급	모집인원	자 격 요 건	근무지
현장 (신입/경력)	현 장 소 장	현장소장	○명	• 공동주택 시공경력 10년 이상인 자	화성동탄 성남판교 충북오송 경북구미 용인흥덕
	토목 건축 안전 조경 소방	과/차장	○명	• 공동주택 시공경력 7년 이상인 자	
		대리	○명	• 공동주택 시공경력 3년 이상인 자	
		기사	○명	• 공동주택 현장 근무 가능한 신입 및 경력자	
	전 기	과장	○명	• 현장 경력 5년 이상인 자	
	품 질 · 공 무	대리	○명	• 해당부문 관련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입 찰	임원/과장	○명	• 해당부문 관련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	경기지사
※ 비 고	• 세부경력 사항 기재요망 • 영어회화 가능한자 우대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함 • 병역 필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형절차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3차 : 신체검사(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07년 04월 23일(월) ~ 2007년 05월 04일(금) 까지
○ 접 수 처 : (500-070)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059-4 모아건설(주) 관리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5. 기 타
○ 이력서 우측 상단에 지원부문, 희망연봉, 희망직급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명시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바람.
○ 문 의 : 062)520-0133~4 (www.miraedo.com)

모아건설(주) / (주)모아종합건설 / 미래도건설(주)

모아그룹 사업 예정내용
• 화성 동탄지구 오피스텔 예정
• 화성 향남2지구 모아미래도 아파트(670세대) 예정
• 용인 흥덕지구 타운하우스(블록형 주택) 예정
• 충북 오송지구 모아미래도 아파트(404세대) 예정
• 경북 구미구평2지구 모아미래도 아파트(340세대) 예정
• 광주 소촌동모아미래도 아파트(286세대) 예정

모아건설(주) (주)모아종합건설 미래도건설(주) (주)모아레저산업 그랑시아웨딩타워